

“이렇거면 왜 낳았나”...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이 친부모

광주지역 아동학대 최근 3년간 352건 발생 시설종사자 학대 급증...작년 16명으로 늘어

#1. 광주에 사는 김모(10)군 남매에게 계모(38)는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다. 계모는 김군의 남매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시로 손찌검을 했다. 남매의 얼굴과 목에는 항상 멍 자국이 가시질 않았고 추운 겨울, 맨발·속옷차림으로 계모에게 쫓겨나기도 했다. 남매에게 계모는 엄마가 아닌, 공포의 대상이었다. 결국 이웃 주민의 신고로 계모의 아동학대 사실은 밝혀졌지만 아버지(40)는 친 자식이 아닌 계모 편을 들었다.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이 내놓은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계모에 의한 아동 학대 사례로, 아동 학대가 일부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 10명 중 8명이 친부·친모인 것으로 나타나 ‘가족·유타라’에서 은폐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은 13일 ‘광주지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접수된 823건의 아동학대 상담 신고 건수

중 352건에 대해 아동 학대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34건(신고건수 302건) ▲2012년 100건(“ 242건) ▲지난해 118건(“ 279건) 등으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담 사례만을 분석한 것인데, 아동학대 대부분이 가정 안에서 부모에 의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드러나지 않는 아동 학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견해다.

유형별로는 친부·친모의 아동학대가 80.81%(288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부모가 아이들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인격권을 무시하면서 일어나는 학대 사례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어 ▲시설종사자 5.11%(18건) ▲조부모 2.55%(9건) ▲계모 또는 부모 동거인 2.27%(8건씩) ▲친인척 1.70%(6건) 등

의 순이었다. 부모가 아닌,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학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시설종사자들도 지난 2011년 2명에서 지난해 16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형국이다.

학대 수준도 두 가지 이상이 복합된 신체·정서·방임 등 중복학대가 33.23%(117건)으로 가장 많았다. , 이어 ▲방임학대 26.98%(95건) ▲신체학대 23.29%(82건) ▲정서학대 10.79%(38건) ▲성학대 4.82%(17건) 등이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아동보호기관의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전담수사팀 운영, 재발 우려 가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책 등도 사후 수습과 처벌 위주의 대책이라는 점에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문화가 강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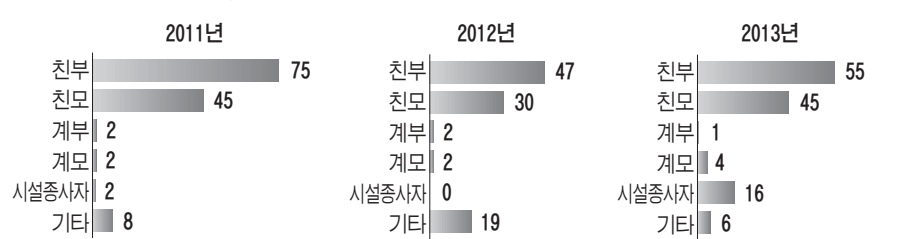
■최근 3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

구분	신고건수	판정건수
2011년	302	134
2012년	242	100
2013년	279	118
합계	823	352

■유형별 학대

구분	신체	정서	성	방임	유기	중복 학대
2011년	31	10	8	37	3	45
2012년	27	11	3	21	0	38
2013년	24	17	6	37	0	34
합계	82	38	17	95	3	117

■학대행위자와 아동과의 관계



(자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아동보호기관)



아찔한 교통사고 13일 오전 나주 금천면 혁신도시 부근 석전 교차로 영산포 방면 도로에서 앞사기던 겐로퍼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가 주행 중 펑크가 나 뒤따라오던 SM5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겐로퍼 운전자가 머리에 철과상을 입었으나 다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심야열차 시각장애인 여성 추행범 법정 구속

심야 열차 안에서 시각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4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다. 피해 여성의 “하지 말라”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15분 동안 시각 장애인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옆 칸에 타고 있던 시각장애 1급 여성 A씨에게 접근,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지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제 추행의 경우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사례가 잦은 점을 고려하면 이례

적으로 중형이 내려졌다는 게 법원 안팎의 분석이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40시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중 교통수단인 기차 안에서 장애인을 15분에 걸쳐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지씨가 지체장애 5급으로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선주에게 정보 제공하고

향응받은 해경간부 조사

선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해양경찰 간부가 검찰에 붙잡혔다.

13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11일 작무와 관련해 선주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및 향응)로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A(34)

경위를 불잡아 조사중이다.

검찰은 A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위는 지난해 말 목포해경에 근무할 당시 승선 선원의 수배 사항 등을 선주에게 알려주고 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10일 긴급 체포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투자금 받으려 온 여성 2명 살해 유기

광주동부경찰, 2명 검거...달아난 공범 추적

광주동부경찰은 13일 투자금 수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투자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박모(25)씨와 류모(25)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은 또 달아난 공범 김모(36)씨의 뒤를 쫓고 있다.

성군 석곡면 봉전리 한 낚시터에서 투자자 A(여·43)씨·B(여·41)씨 등 여성 2명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곡성에서 A씨 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의 승용차에 시신을 싣고 무안군 일로읍 무영대교 아래 영산강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에 사는 A씨 등은 박씨 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줬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 광주를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다.

A씨 등은 지난달 30일 “광주에 투자금 회수를 하러 가는데, 연락이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알라”는 말을 지인들에게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

선·후배 사이인 이들과 A씨는 2년 전 대출 중개 일을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며 달아난 김씨가 피해자들에게 동영상을 제안, A씨 등에게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경찰서 공조 수사요청을 받은 경찰은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 발신지 추적을 통해 A씨 등이 곡성 저수지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점에 주목, 박씨 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천안경찰서의 공조 수사요청을 받은 경찰은 숨진 여성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김씨와 A씨가 곡성의 한 저수지 인근에 있었던 사실을 알아낸 뒤 이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펼쳐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년6억 收益 모델

최고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장부오피스, 확인 후 계약가능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매가 33억(용 15억) 현금 18억
(가격절충 불가, 부동산 사설, 실수요자만)

문의전화 010.5188.5515

NAVER 검색상위권 **단비플라워** 등 최선배

단비플라워

죽아화환3단 근조화환3단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회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NAVER **소리큐**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 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시청할때 핸드폰 통화할때
강의를 들을때 대화 · 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층2층

동구청 전남대 병원 화순
구도청 앞방로 소리큐보청기 천안로
남광주 농협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